

大學生의 進路指導

李 定 根

(職業訓練研究所 研究委員)

I. 進路指導의 必要性

大學生에게 진로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수차의 選拔過程을 통하여 최고학부인 대학까지 왔는데도 進路指導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수한 12년간의 교육은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 大學을 졸업하고 꼭 職業을 가져야만 되는가?

이 글에서 앞서 제기된 疑問을 모두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대학의 현 여건과 앞으로의 추세를 전망할 때 大學生에 대한 進路指導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인구의 증가속도에 비해 고용기회의 창출속도가 뒤진다는 명확한 사실 외에도, 大學教育의 본질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大學教育은 진리탐구에 목적을 둔 소수 정예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그 本質이었지만, 이제는 졸업 후 就業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대중의 職業教育이 목표가 되고 있다. 大學에서 진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高學歷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進路決定時期가 대학으로 연기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大衆化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大學進學率은 이미 세계 제 2위인 日本을 따라

잡았다. 이것은 우리의 대학교육이 이미 大衆化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大學生의 진로 여하가 國家發展의 方向을 결정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제 2의 경제도약을 위해 研究開發分野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수두뇌가 科學技術分野의 전공을 기피한다면 이의 실현은 용이치 않다. 또한 교육부지를 실현하고 우리의 주요 자원인 인력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사범 대학 졸업자가 敎職을 기피한다면 이러한 政策目標은 달성될 수 없다.

둘째, 고등학교에서의 進路指導不在가 대학의 진로지도 수요를 촉발한다. 개인의 적성과 잠재 희망보다는 우선 대학에 合格하고 보자는 心理과 이왕 대학에 진학할 바에는 소위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생각이 고등학교에서의 進路指導 정착을 방해한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이것과 대학의 專攻과를 연결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보다 專門的인 指導가 요청된다.

세째, 勞動市場의 변화가 진로지도를 필요로 한다. 현대의 노동시장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動態的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동일 명칭의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내용을 상당히 변화시

있으며, 심지어 직업명의 生死도 좌우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情報가 대학교육에 피드백되지 않으면 職장의 要求와는 동떨어진 인제가 양성되어 個人과 社會가 모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僱傭機會보다 많은 대학의 학생수는 卒業生의 僱傭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高等教育 수혜자의 失業率을 증대시키며, 상대적으로 下位教育機關 졸업생의 僱傭기회를 제한시킨다. 따라서 高卒學歷으로는 僱傭이 불가능하여 어떻게든 大學에 진학하려 하고, 대학 졸업자는 僱傭이 안 되니 大學院에 진학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결과적으로 學歷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비례, 學問의 分化와 統合이 진로지도의 수요를 유발한다. 지금까지 학문의 발전이란 연구분야의 細分化와 거의 同一視되어 왔기 때문에 대학의 學科도 세분되었고 學科目도 다양해졌다. 여기에 편승하여 대학의 교양과정 운영과 계열별 학생모집은 大學生들로 하여금 專攻選擇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學科와 敎科目的 지나친 세분화는 학생의 현실 적응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 때문에 학문간의 교류(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촉진시키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대학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공을 택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무슨 강좌를 수강할 것인가는 學生의 進路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人間教育 不在가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학교육의 중점이 인간교육보다는 전문교육에 주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회의 요구가 이와 같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대학교육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大學의 專門教育機能은 점차 大學院課程으로 미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大學의 人間教育機能은 아직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고등학교나 그 이하의 수준에서 人間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학교육이 대중화되기 이전, 企業主들은 高卒 職場人에게 “직업기술보다도 人間됨이 우선이다”

란 말을 해 왔다. 즉 기술은 직장에서 가르치면 되지만 직장에서 인간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제 그들은 大學生에게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

II. 進路指導의 內容과 方法

大學生에 대한 진로지도의 내용은 크게 就業指導, 學業指導 및 生活指導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학업지도와 생활지도는 前項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僱傭지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내용으로 제한한다.

대학에서의 僱傭지도는 卒業前과 後로 나눌 수 있는데 졸업 전의 僱傭지도는 학비조달을 위한 副職(Arbeit) 알선과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現場實習處 알선이다.

7·30 教育改革 조치의 일환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課外授業이 전면 금지되자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비조달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학생도 있었고 부모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어 學父母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과 대학 및 사회 각 기관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副職이 많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大學生들은 자신이 대학입시를 위해 준비한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入試指導 이외의 많은 직업에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생의 학비조달과 현실이해란 측면을 넘어 상아탑 속의 대학을 현실세계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大學教育費는 보다 증가될 추세이므로 학생들의 부직 종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전공과 일치되더라도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부직의 개발과 이에 따른 指導를 固定業務化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부직조건을 규정하는 就業規則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產學協同體制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여 이에 따른 現場實習도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産業化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대학의 職業教育이 강조되면 필수목 산학협동은 필수조건이 된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졸업생의 취업문제도 산학협동체제를 잘 활용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취업지도와 관련된 대학의 주 관심사는 역시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도이다. 취업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취업처에 대한 情報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언제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 입사시험의 내용과 방법 및 인사 담당자에 대한 사항도 수집해야 한다.

또한 취업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취업희망자에 대한 人的事項은 물론 그의 능력, 성격 등도 확실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敎授나 大學의 추천제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人間性을 중시하는 기업의 채용요건을 볼 때, 교수의 추천이 취업에 작용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에 따라서는 就業處를 못 찾아서 조바심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 곳으로부터 취업권유를 받는 수도 있다. 前者에 대한 취업알선은 물론, 後者에 대한 指導助言도 취업지도의 주요 기능이다. 유능한 취업지도 담당자는 後者의 경우 당해 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직장을 선택해 주고, 여타 求人者로 하여금 소속 대학의 學生을 채용토록 유도한다.

채용이 되어 職場生活를 하는 卒業生에 대한 사후지도도 취업알선 못지 않게 중요하다. 최근 美國에서는 '卒業生 品質保證制度'를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의 골자는 취업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僱用主가 불만을 토로하면 당해 졸업생을 학교로 소환하여 무료로 再敎育을 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制度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大學이 卒業生의 資質과 能力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자세와 産業界의 要求에 학교교육의 內容을 접근시켜야 된다는 점은 참고가 될 것이다. 卒業生에 대한 事後指導를 강화하면 산업계의 호응을 받아 다음 학생의 취업알선도 용이할 것이며, 大學 자체의 發展도 도모할 수 있다.

진로지도와 관련된 學業指導로는 專攻學科의 선택, 受講科目의 선택, 卒業論文의 작성, 大學院進學 여부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전공학과

의 선택문제는 大學의 入試制度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일률적으로 다룰 수 없다. 즉 大學別 또는 系列別 모집이 아니고 學科別 모집일 경우는 專攻選擇에 대한 지도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進路選擇에 대한 決定時期가 점차 대학으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學生 選擇方法도 이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계열별로 학생을 모집했다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學科別 모집으로 후퇴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受講科目 선택도 지금과 같이 學年制에 기반을 둔 경직된 學點制 운영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가 커져서 선택과목의 폭이 넓은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指導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卒業論文의 作成과정에서도 학생의 진로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의 전공이나 학생의 一時的인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論文이 아니라, 學生의 生涯와 연결된 논문이 보다 생산적이다. 大學院의 진학은 가급적 一定期間의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정말로 그 필요성을 느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就業時期를 늦추는 방편으로의 大學院 진학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취업지도와 관련된 生活指導에는 人生設計, 봉사활동, 異性交際, 性格指導, 現實參與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다. 이 중에서 학생의 人生設計는 이전에 수립한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現實에 接近시키는 작업이 요청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大學에서의 進路指導가 필수적이라 하면 과연 이를 누가 담당할 것이며 어떻게 指導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學生生活研究所'에 이를 전적으로 떠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학생별 指導敎授와 소속학과의 교수가 일차적인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전문적인 것은 학생생활연구소나 취업 전담부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진로지도의 시간은 그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개별지도는 강의시간보다는 그 외의 시간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학과선택, 人生設計, 취업안내 등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별도의 강의시간을 이용하는 집단지도가 합리적이다. 대학에서의 진로지도에 대한 技法은 계속 개발되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그러므로 진로지도에 대한 專門家を 우선 배치하여 이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Ⅲ. 進路指導 活性化를 위한 提言

상대적으로 충분한 人的 資源을 가진 우리나라가 계속 發展하기 위해서는 인적 資源을 開發하고 개발된 人力을 잘 活用해야 한다. 이렇게 원칙론에는 모두가 찬성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方案에 대하여서는 異見이 많아 실천되지 않는 수가 있다. 進路指導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그 重要性은 모두가 認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方略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中等學校水準에서는 아직도 活性化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大學水準에서의 진로지도는 좀 상황이 다르리라 판단된다. 일단 진로지도의 필요성만 인정이 되면 그 實行은 즉각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理由는 첫째, 大學의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中·高等學校와 달리 大學 卒業生의 進路問題는 사회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反應 여하가 大學發展을 좌우하게 된다.

둘째로 大學의 數와 學生數가 中等학교보다 적으며, 학교운영의 自律權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적어지며, 직원채용과 교과과정의 운영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進路指導 專門家의 채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수월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大學의 進路指導活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必要性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진로지도의 效果가 명백히 제시될 때 大學 운영자의 決定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지도의 概念과 範圍를 명확히 하는 것도 이를 活性化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學生指導가 학생들의 現實參與에 대한 지도로 인식되는 상태에서는 학생지도의 일부인 進路指導가 발전할 수 없다. 論理的인 모순은 따를지 모르지만 진로지도를 학생지도로부터 分離시켜 별개의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육성시키는 것이 진로지도 活性化의 첩경이다.

진로지도가 大學이란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즉 교수 대 학생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學生과 敎授의 인간적 접촉이 가능토록 배터하는 것도 進路指導뿐만 아니라 大學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대학에 입학한 뒤 학생의 입장에서 進路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진정한 의미의 學點制를 실시하는 것은 진로지도가 발전할 수 있는 촉진제인 동시에 有能한 人材가 양성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여건만 조성된다면 진로지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은 專門家의 손에 맡겨도 된다. 아뭏든 대학에서의 進路指導는 학생에게 그 도움이 극한된 봉사활동이 아니라, 大學과 國家가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政策當局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